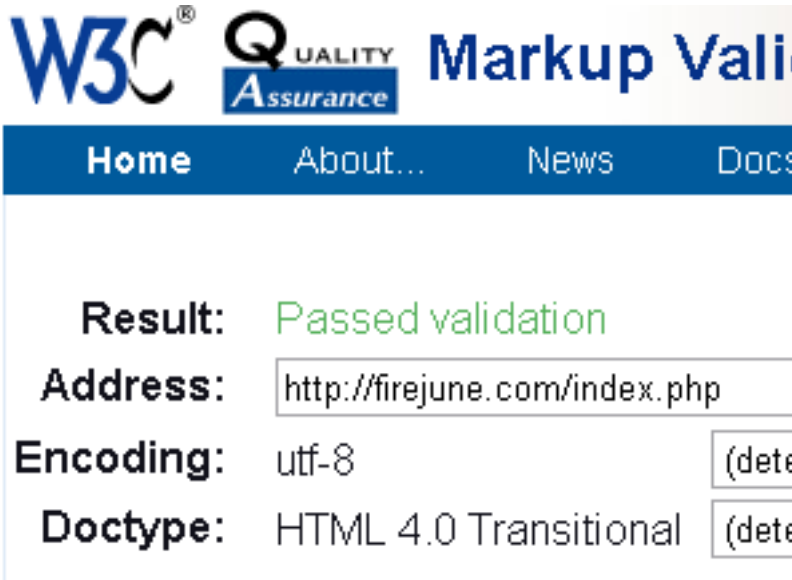


클래식, W3C 유효성검사 통과 (Valid HTML4.01)



The image shows a screenshot of the W3C Markup Validator website. The page features the W3C logo and the text 'QUALITY Assurance Markup Validator'. A navigation bar includes links for 'Home', 'About...', 'News', and 'Docs'. The main content area displays the following information:

- Result:** Passed validation
- Address:**
- Encoding:** utf-8
- Doctype:** HTML 4.0 Transitional

스킨작업을 하면서 웹 표준을 지키는 코딩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스킨만으로는 웹표준을 준수할수 없는 것을 알게 되었고, 태터툴즈 클래식의 웹 표준에 반하는 코드도 모두 뜯어고쳐 [W3C의 표준 유효성 검사](#)를 통과하였습니다. 처음에는 300개가 넘는 오류로 자포자기하고 있었지만, 하나하나 수정하기 시작하여 태터툴즈 클래식을 사용하는 블로그도 웹 표준 유효성 검사를 통과하게 된 것입니다. 이곳 외에도 [Tyburn](#)님과 [Vincent](#)님도 이미 클래식을 XHTML1.0까지 통과시킨 전적이

있습니다.

W3C HTML 4.01 웹 표준 유효성 검사 바로가기



유효성을 통과하면 좌측의 배너를 사용하여 언제든지 해당 웹 페이지의 유효성 검사를 해볼수 있습니다. 태터툴즈 클래식을 웹 표준 준수 블로그틀로 만들기위한 가장 까다로웠던 작업은 name으로 정해진 품이름입니다. 삽질 끝에 name를 id로 변경하고 몇 줄의 자바스크립트 함수의 변경으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. 포스트 작성도 웹 표준에 따라 작성해야 합니다. 때문에 이전에 작성한 글에서는 오류가 나타나기도 합니다. 그래서 글 입력페이지도 대대적으로 손보았습니다. 기존에 입력했던 글과 댓글들이 HTML 4.01 표준에 만족하도록 마이그레이션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. 조금 더 공부해서 XHTML 1.01 표준에도 도전해 볼 생각입니다. 앗! 그전에 CSS 1.0부터 orz...

약간의 테스트 과정을 거친 후 태터툴즈 클래식이 HTML 4.01 웹 표준을 준수하도록 만드는 방법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설치형 블로그에서 웹 표준을 준수하기 위한 첫걸음으로는 웹 표준을 준수하는 스킨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. 이제부터 배포하는 스킨은 웹 표준을 준수할 것을 약속합니다.